

2004 신앙사경회 메시지

조현삼목사, “이제는 한국교회가 빛을 발해야 할 때” 담임목사, “교회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교회 만들기를”



2004 신앙사경회가 23-25일 사흘에 걸쳐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첫째, 둘째날은 서울광염교회 조현삼 목사가, 셋째날은 담임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증거했으며, 매일 9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눴다.

조현삼 목사는 첫째 날은 마16:13-20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날은 사60:1-22을 중심으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담임목사는 계7:5-17을 중심으로 ‘그날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조목사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본문(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잘 아는 제목(예수 그리스도)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야기는 몇 번 들으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싫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해도 싫증이 나지 않는다면 예수그리스도 확신있게 증거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살림을 차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당부하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이 기도라고 말했다.

둘째 날은 이사야 60장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말씀했다.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빛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안타까운 점은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가 그 빛을 세상에 발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만 매인 신앙관을 지적하며, 한국교회와

(2면에 계속)



2004 구역교재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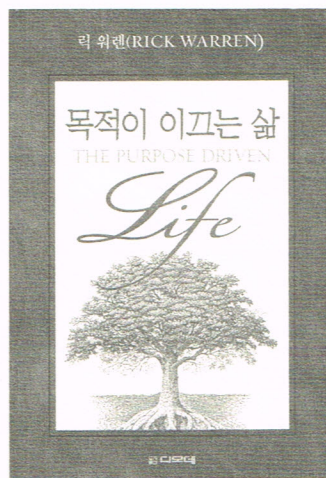
2004년도 구역모임은 릭워렌 목사가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역교재를 자체제작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지난 10여년간 미국사회의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베스트셀러가 될만큼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이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요구하는 진리의 핵심에 이르게 된다.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뱃머리가 아닌 목표지점을 바라보며 노를 저어야 하는 것처럼, 이 책은 자칫 뱃머리만 바라보며 인생의 노를 저어가기 쉬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배를 저어가야 할 목표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넘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육군 훈련소 사역팀, 첫 발

육군훈련소사역팀은 19, 26일(목)에 영아부실에서 육군훈련소교회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시간을 가졌다.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기도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3월 21일 주일에는 육군훈련소에 직접 내려가서 사역할 계획이다.

청년 소그룹 모임 시작

지난 주일(22일) 4부 예배 후 청년 1, 2부는 앞으로 1년간 함께 성경공부를 하며 복음에 대해 이야기 할 소그룹을 발표하고 첫모임을 가졌다. 각 조원들의 자기 소개와 소그룹진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3월12일, 구역개강

2004년도 1학기 구역모임이 3월12일(금)부터 시작되며, 한주 앞선 3월5일(금) 저녁7시에 지하찬양연습실에서 구역장워크숍이 있을 예정이다. 자체제작하는 구역교재(책)는 10일 수요일성경공부 시간에 구역장을 통해 무료배부되며, 대심방도 구역모임 시작과 함께 시작된다.

양동훈 장로의 당회원 세미나 주제발표

느헤미야를 통해 본 성경적 리더십

진새골에서 있었던 당회원수련회 둘째날(2월14일)에는 양동훈 장로를 강사로 “느헤미야를 통해 본 성경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당회원세미나가 있었다.

양동훈 장로는 주제강의에서, 오늘날의 시대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첫째 중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간 사람, 둘째 평신도 지도자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사람, 셋째 영적인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며 준비된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주제발표후,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며,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고도 의미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년 사역자 되고파”

윤은성 목사는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과 시대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목사이다.

미국에서부터 청년사역과 예배사역자로 활동해온 그는 조국 교회의 청년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청년들을 글로벌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사역에 비전을 품고 있다. 주님의 교회 청년부의 중요한 비전을 ‘한국교회를 위한 청년부’로 정하고 섬기고 있으며 목회자 가정에서 1녀 3남중 장남이다. 목회자이신

부모님께서는 목회 30여년을 마감하고 중국 선교를 거쳐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며, 누님은 방콕에 거주하며, 두 남동생들도 전도사로서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집안의 목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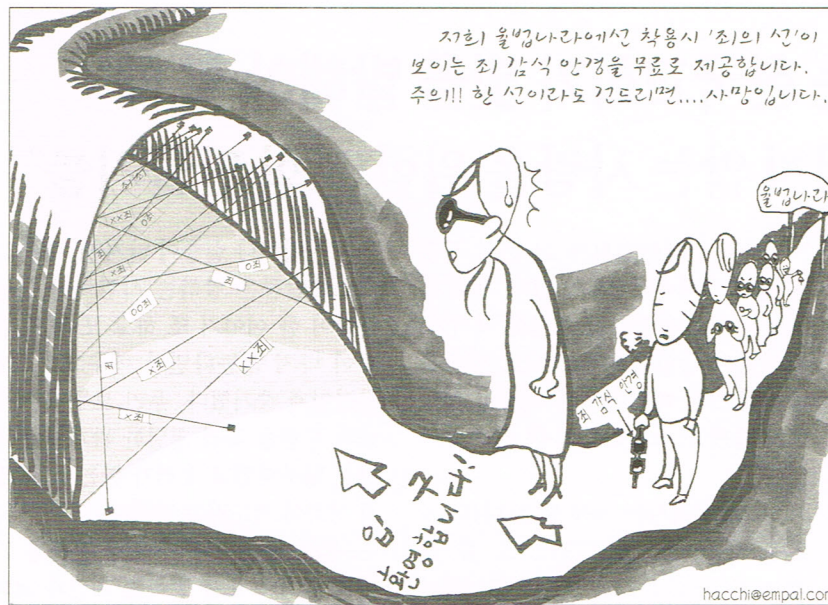
목사 안수시에 아버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부탁대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조국 교회를 새롭게하고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충성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로 날마다 다짐하고 있다.



안수집사회의 3월 월례회

2004년도 안수집사들은 새로 편성된 부서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행 청지기로 봉사하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임원진과 회장단은 위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교회 내에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상(喪)을 당해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를 위로하는 일로 봉사해왔다.

안수집사회 재무현황 (2003.6~2004.2)을 보고한다. 수입은 전기이월, 회비(17명)등으로 3,148,639원이었다. 총회경비, 산행경비, 경사(2명), 애사(19명)등으로 1571,780원을 지출했다. 더욱 활발히 진행하도록 참여와 회비납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3월 월례회가 3월 14일 오후 1시에 있다. 장소는 교회 5층 찬양연습실이며 안수집사 부부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1부 최창섭 장로 강좌와 2부는 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다.



(1면에서 계속) 신앙사경회

빛을 감추지 말고 이제는 당당히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역설했으며, 작년 마산수해 지구 희망의집 구제사역이 드러낸 빛을 한예로 제시했다.

이어진 담임목사의 마지막날 말씀은 계 7장의 어린양 혼인잔치의 비전을 ‘그날의 영광’으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열린 교회로서의 교회 비전을 강조했다. 특히 고전 9:18-22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나 행복권을 남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 그리고 한사람 영혼구원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설명했다. 교회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맞출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담임목사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강조했다.

사흘간의 사경회 기간 동안 예배부와 안내부, 차량 안내부와 탁아부 그리고 봉사부원들의 숨은 수고와 헌신이 이번 사경회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었다.

[학부모교사 세미나 주제설명 1]

메빅(MEBIG)!

암송, 말쑸, 게임이 어우러진 어린이 예배

3월20일,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의 주제인 메빅은 1986년 일본 삿포로에서 시작되었다.

메빅을 처음으로 실시한 곤베 목사의 생각은 일본인 선교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효과를 거두기가 너무나 어려우며

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MEBIG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MEBIG은 이제는 타이완과 한국을 비롯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까지 세미나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메(ME) : MEMORY의 첫글자로 암

송이다. MEBIG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은 한 주일에 한 구절씩 꼭 말쑸을 암송한다.

비(BI) : BIBLE의 첫글자로 말쑸이다. MEBIG 예배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쑸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또 MEBIG에서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 속 성경적 메시지를 소리 높여 찬양한다.

익(G) : GAME의 약자로서 게임이다. 게임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 올 때 자기의 속사람을 가리고 왔던 가면을 벗기 위함이다. 즐거운 마음에 승부욕을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며 협동심을 발휘하기도 하면서 마음 속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메빅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분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는 예배이며 말쑸이 중심이 되는 신나는 어린이 예배이다.

어린이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
어린이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메빅을 만들어...

“Challengers” -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

교육위원회에서는 2004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 “Challengers”를 준비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에게 주님의교회 교사자격을 수여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은 3월 14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최인영전도사 016-744-4663)

3/20(토)	3/21(주일)	3/27(토)	3/28(주일)
challenge 1 pm5-6:30	challenge 3 pm3:30-5	challenge 5 pm5-6:30	challenge 7 pm3:30-5
MEBIG 1: 이기동 전도사(명성교회)	교회학교 진단과 도약 모색 김현령 전도사(주님의교회)	AWANA 1 이종국 목사(여와나코리아)	AWANA 3 이종국 목사(여와나코리아)
challenge 2 pm7-8:30	challenge 4 pm5:30-7	challenge 6 pm7-8:30	challenge 8 pm5:30-7
MEBIG 2 이기동 전도사(명성교회)	교사 부흥회 1 홍민기 목사 (강남교회)	AWANA 2 이종국 목사 (여와나코리아)	교사 부흥회 2 홍민기 목사 (강남교회)

현재 1억 2천 6백만 명의 일본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교회학교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일본교회의 어린이 출석은 10명을 넘는 곳이 드물며 점점 노령화되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다. 그러기에 이런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곤베 목사는 어린이 전도에 사활을 걸고 어린이가 오고 싶어 하는 교회, 어린이

가장귀한 보물 십자가를 찾아라!

소년부 겨울수련회, “보물섬의 비밀”이란 주제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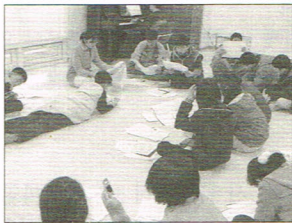


지난주 금(20일)-토(21일) 이틀간 소년부는 ‘보물섬의 비밀’이라는 주제 하에 겨울 수련회를 가졌다. ‘보물섬 놀이마당’과 다음날 진행된 ‘보물섬 대탐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성경도 재미난 책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각자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1년을 위한 준비

중등부 찬양대 수련회

지난 금(20일)-토(21일)에 브니엘 찬양대의 수련회가 있었다.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찬양대 수련회는 이중은 선생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이틀간 말씀묵상 기도, 그리고 1년간 부르게 될 곡들을 미리 앞서서 연습하였다.



고등부수련회,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등부는 2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수련회는 “동행의 삶”이란 주제로 우리 삶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초등부 문희곤 전도사의 말씀을 들은 고등부 친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선교사로 살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였다.

펼치면 나비, 접으면 기도손 유아부의 기도손만들기

유아부는 22일주일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자’는 최인영 전도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각 반별로 “기도손” 만들기를 했다.



다. 펼치면 예쁜 나비가 되고, 접으면 기도손이 되는 멋진 작품을 가지고, “주먹위에 주먹 눈사람~ 보자기 옆에 보자기 나비~”를 한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하였다.

영아부놀이,

하얀 종이위의 고사리 손도장



지난 주 일(22일) 영아부 아가들은 재미있는 손도장찍기 놀이를 했다. 아가들의 작은 손에 분홍색,

초록색, 파랑색이 물들어 하얀 도화지 위에 고사리 같은 손가락들이 펼쳐졌다. 반별 선생님이 손도장안에 아가들의 이름을 적어 넣어 올려주었고, 우리 아가들은 풀칠한 손도장을 우리 교회 그림에 꼭꼭 붙여 보았다.

아직 또박또박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벽에 붙은 자기 손도장을 가리키며 “내꺼!”라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청년부 찬양팀, 공개 오디션 가져

지난주일 저녁 6시에 청년부 찬양팀 ‘새벽이슬’은 새로운 멤버를 충원하기 위하여 공개 오디션을 가졌다. 교회 5층 찬양 연습실에서 치러진 이날 오디션에서는 싱어와 악기, 엔지니어 등 세 분야에 헌신해 줄 사람을 뽑았는데 오디션은 면접과 실기로 나누어져 치뤄졌다.

청소년사역 집중을 위한

비전팀의 계속되는 달음질

22일 주일 오후4시 비전팀 3차 모임이 교회 4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담임목사는 모임전에 들려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세계적인 비전을 심어주고 국제기구에서 세계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국제기구 및 회의를 참관하는 비전트립’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팀장 권오승 장로는 발제를 통해 ‘청소년사역에 집중해야 할 이유, 목표와 내용 및 사역방법, 사역의 집중화를 위한 준비’에 대하여 나누었고, “진리를 찾고, 삶을 나눔으로써 인격변화를 가져오는 공동체 원리”를 기본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청소년 집중사역을 위해 밖으로는 청소년 사역의 현황파악,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네트워크화, 안으로는 전교인 공감대 형성, 사역팀 구성, 예산확보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 다음 모임은 3월 7일과 21일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윤은성 목사와 동현수 집사의 발제와 토의가 예정되어 있다.

양육과목 소개

A. 예수전도단 문희곤 목사와 함께 하는 어머니학교

2004년도 1학기 양육과정에는 예수전도단 대표 문희곤목사가 진행할 어머니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 어머니됨의 정체성과 어머니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목표하고 진행하게 된다. 어머니학교는 원칙적으로는 40세 이하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령에 제한없이 40세 이상의 어머니들도 참석가능하며,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도 참석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주경복 집사의

불어성경과 유럽문화

주경복집사는 불어성경공부를 하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문화, 기독교의 역사, 종교개혁을 전후한 유럽의 종교적 패러다임, 포스트모더니즘을 둘러싼 신앙문제토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전공을 살려서 교회에 봉사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하는 주집사는 현재 건국대학교 불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제2기 유소년 축구 클럽 모집 “우리는 희망을 찬다!”

유독 운동화 장사가 잘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컴퓨터, 과외, 학원 등 실내 생활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둥근 축구공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유소년 축구클럽이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가을 많은 성도들의 사랑속에 시작된 유소년 축구클럽이 이제

제2기 생을 모집하니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대상: 남녀 초등학생, 중학생
첫모임: 3월 7일(주일) 오후1시 소예배실
훈련기간: 2004. 3. 7 - 6. 27
(매 주일, 총 17주, 우천시 실내 교육)
오전 11시 - 12시 30분 (중등부),
오후 1시 30분 - 3시 (초등부)
강사진: 이용수 집사(유소년축구클럽

부장 2002 한일 월드컵 기술위원장), 조남윤 성도(브라질 축구 아카데미 대표, FIFA AGENT), 신재홍 성도(주택은행, 안양LG 코치 역임) 외 세종대학교 체육과 학생들
회비: 7만원 (인상된 회비 내역: 추가된 3주 프로그램 1만원 + 보험료 1만원)
접수방법: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비와 함께 제출. (지원자 과다초과시 추첨)



{교회소식}

1. 2004년도 교회요람 배부안내

교회요람이 오늘(29일) 안내데스크(1층로비)를 통해 배부됩니다. 구역장(권찰)은 구역세대수만큼 받아가셔서 구역원들에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별로는 배부하지 않습니다.

2. 찬양대 수련회 안내

호산나찬양대(1부)는 오늘(29일) 1부예배후부터 저녁까지 5층 찬양연습실에서, 시온찬양대(2부)는 오늘(29일) 오후 4시부터 내일(30일) 오후4시까지 남양주시 진광전원교회에서, 살롬찬양대(3부)는 오늘(29일) 오후3시부터 10시까지 유치부실 및 지하 찬양연습실에서 각각 찬양대수련회를 갖습니다.

3. 수요 탁아방 운영

교육위원회는 3월부터 수요성경공부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자모실과 꾸러기 탁아방을 운영합니다. 수요성경공부가 진행되는 동안 유아부터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의 돌봄 아래 놀이와 비디오 시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모실 : 1층 고등부 예절실 꾸러기 탁아방 : 1층 유아부실

4. 통합아동부가 3월부터 시작

교육위원회는 3월부터 통합아동부(가칭)를 운영합니다. 기존에 아동부 예배가 없는 2부예배시간(9시 30분~10시 30분)에 1층 유년부실에서 1-6학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장 윤명희 집사와 여러 교사들이 헌신의 마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도와 땀으로 준비해왔습니다.

5. 고등부 학부모 간담회 연기

고등부의 사정으로 학부모 간담회 일정을 2월 29일 오전 10시 40분에서 3월 14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연기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 발 마사지 교육 선착순 40명

발 마사지 교육이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4주간에 걸쳐서 1층 유년부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40명 선착순으로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합니다.



7. 제30기 호스피스부 자원봉사교육 안내

임종에 가까운 말기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돌보며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3월 18일(목)부터 5월 27일(목)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정동제일감리교회 사회교육관 지하1층 아펜젤라 홀(덕수궁 뒤)에서 실시됩니다.

죽음준비의 15가지 목표, 말기환자의 증상과 돌봄, 죽음이해와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노인환자의 심리와 보살핌, 치매예방과 치매예방 돌보기 등을 주제로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12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강료는 7만원입니다 (문의: 김양자 권사, 017-250-0670)

8. 교역자실 간사부임

담임목회 비서 및 교역자실 간사로 최 희 자매가 2월23일부로 교역자실에 부임하여, 교역자실에서 근무합니다.



9. 새가족 등록 및 정착 과정안내

주님의교회 새가족의 등록 및 정착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등록대에서 새가족 등록위원의 안내를 따라 등록카드를 기록한다.
- 2) 예배를 마치면 등록한 새가족을 (인도자도 함께) 새가족환영실로 인도한다.
- 3) 새가족환영실에서 교구담당 교역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교역자는 구역편성과 새가족 반, 바나바사역자연결, 새가족심방 등을 확인한다.
- 4) 새가족은 자신에게 연결된 바나바사역자를 통해 가까운 교우를 소개받고 자연스럽게 관계형성을 이루게 된다.
- 5) 주일2,3부예배 후에 있을 5주과정의 새가족 성경공부반에 참여한다.
- 6) 새가족이 가능한 때에 교구교역자의 심방을 받는다.
- 7) 바나바사역자와 구역장은 새가족을 구역모임으로 초청한다.
- 8) 2-3개월마다 열리는 새가족환영행사를 통해 주님의교회 가족됨을 함께 축하하고, 담임목사와의 만남과 더불어 후속 양육과정과 사역을 소개받는다.
- 9) 구역정착과 함께 200양육과정 혹은 사역에 참여한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통합아동부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 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복지선교부, 나눔의물품을 더 조직적으로

복지선교부 첫모임이 2월 22일 오전 11시부터 4층 당회원실에서 열렸다. 윤덕영목사, 김현덕 장로, 이충길 부장 그리고 12명의 부원들이 참석하였다.

주요 안건은 전용 카페(cafe.daum.net/kumbayah)를 통하여 평소 부원



간 대화를 활성화하다가 필요시 짧은 소모임을 자주 갖고 각 피 후원기관별 봉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봉사자가 교회와 피 후원기관 간에 행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향후 송금만 하는 후원이 아니라 봉사자의 손발도 같이 뛰는 봉사를 지향하고 나눔의 물품도 선(先) 분류, 후(後) 배분하여 헛되지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등이었다. 나아가 나눔의 물품을 회사한 교우에게는 그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차후에 알려주어 기쁨과 보람을 같이 나누기로 하였다.